

·내일신문 2006년 05월 03일 20면

“환경문제에 관심가질 것”

노 대통령, 지속가능위원 위촉장 수여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면서 환경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참여정부 출범후 3년간은 경제에 중심을 두었으나 이제 경제문제는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이같은 말했다고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큰흐름 속에서 볼때 환경문제와 관련해 더 좋아지는 쪽이 많아지고 있다”며 “좋아지는 쪽을 더 촉진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로,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능동적으로 계획을 사전에 못 세운데서 기인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 관련이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능동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제 개발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과 통합적 고려가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면 실질적인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관계장관과 협의해 여러분의 수고가 보람되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 등을 초기부터 공론화해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연안 및 해양, 에너지분야의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고 하구 환경 관리, 하천 복원 방안, 대기·교통·에너지 통합 수요 관리정책, 자원 순환형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4기 위원회는 특히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기능을 분리하고 갈등조정을 전담할 갈등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 활동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계부처 장관 등 12명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중요사안에 대한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수시로 열어 ‘배심원적’자문 기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세계 각국에 지속가능위원회(NCSD)설치를 요청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대통령 자문기구다.

연합뉴스 김범현·김성용 기자